

캐나다 「사슴 CWD」 파동

## 감염사슴 도축소각 명령, 녹용수출 금지

캐나다에서는 최근 유럽의 광우병과 유사한 「사슴 만성소모성질환(CWD)」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비상에 걸렸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지난해 12월 26일 보도했다.

BBC는 캐나다에서 몇 달새 1천500여 마리의 엘크 사슴이 CWD에 감염됐다면 보건 및 농업 당국이 현재 방역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엘크는 캐나다에서 고기와 녹용을 얻기 위해 사육되는 사슴종(種)으로 CWD에 감염된 엘크는 광우병에 걸린 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뇌에 스펀지처럼 수많은 구멍이 뚫리면서 죽게 된다.

아직까지 사슴 CWD가 인간이나 소에게 전

염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광우병에 대해 제대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 당국은 감염된 사슴을 모두 도축해 소각할 것을 명령했고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약재로 애용되는 녹용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량의 엘크 고기와 녹용이 이미 소비됐는지 모른다는 점으로 현재 캐나다 내에서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사슴 CWD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역원, 사슴 CWD 정보수집 등 다각 노력

## 사슴 및 생산물 수입검역 중단조치

캐나다의 엘크사슴에서 광우병으로 추정되는 CWD가 발생해 방역당국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검역당국도 지난해 12월 28일 현재 캐나다산 사슴 생산물 및 사슴수입을 중단했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12월 27일 저녁 캐나다 현지 엘크사슴에서 사슴 CWD로 추정되는 질

병이 발생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특히 사슴 CWD에 감염된 엘크사슴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해, 소각처리 했으며 녹육이나 녹용 등에 대한 수출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당국은 12월 28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캐나다산 사슴 및 생산물의 수입

검역을 중단조치했다. 또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비롯해 외교채널을 통해 캐나다의 엘크사슴 광우병에 대한 발생내용 등 자세한 정보수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당국은 현재까지 국내에 수입된 캐나다산 녹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3톤이 수입됐으며 사슴은 지난해 수입이 없었지만 올해 농협중앙회가 종북용으로 3마리를 수입했다고 검역당국은 밝혔다.

이번 캐나다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슴 CWD는 현재까지 1천5백여두의 엘크사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곤란을 주 증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이나 소에 전염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검역당국은 또 그동안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부 고시 제 1996-24호, 96. 4. 20)에 따라 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발생 지역산 사슴 등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생사슴의 경우에는 수입금지, 사육된 사슴이라 하더라도 사육농장 반경 20km이내에서 소모성질병이 5년동안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생산한 것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의약청은 이와 관련 캐나다산 사슴 녹용에 대한 리콜(회수)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녹용수입 통관을 잠정 보류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산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검역실적 ('99. 1. 1~2000. 11)

□ 사 슴

년 도	품 목	건 수	수량(마리)	비 고
'99	사 슴	-	-	
	엘 크	-	-	
	소 계	-	-	
'00. 11	사 슴	-	-	
	엘 크	1	3	
	소 계	1	3	
총 계		1	3	

□ 사슴의 생산물

년 도	품 목	건 수	수량(kg)	비 고
'99	녹 용	277	9,835	
	생녹용	22	26,379	
	녹 각	1	1	
	소 계	300	36,215	
2000	녹 용	241	7,322	
	생녹용	22	43,278	
	녹 각	1	0.2	
	소 계	264	50,600	
총 계		564	86,815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CWD 상황실 설치

# 사슴 만성소모성질병 긴급방역 추진

농림부는 캐나다산 사슴의 「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CWD)」 발생과 관련(2000. 12. 27, 연합뉴스 등 보도)하여 지난

12월 28일 캐나다산 사슴 및 그 생산물의 수입검역을 잠정중단조치하면서 캐나다 정부에 CWD의 발생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01. 1. 11일자로 캐나다의 CWD 발생 및 방역 조치내용을 농림부에 통보하였다.

농림부가 밝힌 캐나다 정부의 통보내용에 의하면, 캐나다 내에서 2000. 5월 CWD 발생이 확인되어 캐나다 정부가 추적 조사한 결과, CWD가 발생한 캐나다내 농장으로부터 94년에 23두, 97년에도 72두의 엘크가 한국에 수출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캐나다측은 CWD의 잠복기간이 18~30개월이며, 안전기간을 포함한 최대잠복기간이 36개월으므로 우리 나라에 수입된지 이미 3년 이상 경과된 사슴에서 현재까지 CWD 임상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캐나다 정부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국내로 수입된 사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사슴에 대해 2월 15일까지 일제 임상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1월 12~14일 사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의전문가를 캐나다에서 수입된 사슴을 사육하는 6개 농장(약 123두 사육)에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 신경증상 등 CWD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사슴(약 15만두)에 대해 신경증상 등 CWD의 임상증상이 있는지를 현재 일제 검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 이상증상이 있는 사슴은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책 추진을 위해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사슴만성소모성질병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예찰 등 방역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부는 사슴사육농가에게 신경증상을 보이는 사슴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일제 임상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 캐나다의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CWD가 사슴간에만 감염되며 사람과

소, 양 등 어떤 다른 가축에도 감염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CWD는 아직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주요 가축전염병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질병으로서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 □ 만성소모성질병(CWD)이란

- 정확한 원인체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 보다 작은 비정상적인 변형 프리온(prion) 단백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엘크 등 사슴류에서 침흘림, 균형감각상실, 삼키기 어려움 등 신경증상을 보이다가 폐사하는 질병으로 사람과 소, 양 등에는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전파·감염방법은 불명확하나 동거축끼리의 접촉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잠복기는 18개월내지 30개월이나 안전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잠복기간이 36개월임.\*

## 회비 조정 및 납부 안내

본회 정관 제9조 제②항(의무) 및 회비규정 제6조(조정), 제9조(납부)에 의거하여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연회비를 직할회원은 10만원으로 균등 조정하고, 지회 회원은 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비는 가급적 3월말까지 납부하여 회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양록협회**